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10. 2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EU, 난민으로 인한 테러 등 우려로 국경 검문 강화
 - 10.17 언론은 유럽연합(EU) 회원국들이 전쟁 등을 피해 유럽으로 입국하는 중동·아프리카 이주민이 급증하자, 테러·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경 검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유럽 내 테러정세 악화 가능성에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
- 獨, 이스라엘 대사관 대상 테러 모의한 리비아인 체포
 - 10.20 언론은 독일 경찰이 외국 정보기관의 첩보를 통해 베를린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공격 계획을 세운 ISIS 조직원 28세 리비아인 남성 1명을 체포했다고 보도
 - ※ 同 사건 후 이스라엘 대사는 SNS를 통해 대사관 안전을 보장해준 독일에게 감사표명

미주

- ISIS, 미국과 유럽에 대한 테러 모의활동 지속
 - 10.21 언론은 ISIS가 최근 들어 세력을 잃었거나 아예 사라졌다는 일반적 대중의 관념과 달리, 채팅방이나 암호화된 앱에서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미국 및 서방에 대한 테러 모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특히, ISIS-K는 지난 3월 모스크바 테러(사망자 145명), 파리 올림픽을 비롯해 서방의 크고 작은 행사마다 테러를 기도하는 정황이 지속 포착되고 있다고 부언
- 美國人, 이슬람 테러조직 가입하려다 적발
 - 10.20 언론은 美 메릴랜드의 남성(21세)이 ISIS에 가입하려 아프리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며 同人은 작년 3월부터 ISIS에 가입해 싸우겠다는 의사와 함께 親이스라엘 주민들 공격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다 보도
 - ※ 同人은 올해 5월과 6월 탄약을 구입한 뒤 메릴랜드에 위치한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을 하였고 7월에는 러시아산 공격용 무기를 구입하려다 거부당했다 부언

중 동

- 이스라엘, 총리 자택 노린 자폭드론 공격
 - 10.20 언론은 이스라엘 「네타냐후」 총리 자택을 겨냥한 자폭드론 공격이 헤즈볼라에 의해 감행되었으며, 드론 3대 중 1대가 방공망을 뚫고 폭발하였으나 부상자는 없었다고 보도
- 이스라엘, 병원 밑 병커에 헤즈볼라 테러자금 보유 주장
 - 10.22 이스라엘軍은 헤즈볼라가 레바논 베이루트의 병원 건물 아래에 테러자금 약 5억\$(한화 7천억원)을 보관한 병커가 있다고 발표하며, 병커 내 테러자금을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레바논 정부에 경고
 - ※ 이스라엘軍 대변인은 병원을 수년간 지켜봤으며, 헤즈볼라가 레바논 시민들에게 빼앗은 돈을 보관하며 조직의 금융 시설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부언

아 · 태평양

- 日, 오는 27일 총선에 앞서 총리 등을 겨냥한 공격 발생
 - 10.20 언론은 日 경찰이 자민당 본부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총리관저로 차량 돌진을 시도한 「우스다」를 공무집행방해로 검거한 후 금속탐지기·드론 등으로 경호경비를 강화하자,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을 보도
 - ※ 현재까지는 단독범행으로 추정하나, 일본의 조사결과 등 조치사항 모니터링 필요
- 필리핀 거주 미국인, 경찰 가장 무장 괴한에게 납치
 - 10.20 언론은 지난 17일 밤 치안이 열악한 민다나오섬에서 미국인 남성(26세)이 M16 소총을 들고 경찰을 가장한 무장 괴한들에게 총을 맞고 납치돼 경찰이 추적, 수사 중이라고 보도
 - ※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同 지역이 이슬람 과격 테러단체의 납치·폭파 등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고 필리핀 쏘 지역 역시 테러 위험이 높으며 우리국민 주의를 당부

아프간, 시아파 모스크 겨냥 자폭 테러 발생

- '21.10.15 아프간 남서부 칸다하르* 지역의 시아파 모스크(이슬람 예배당)에서 연쇄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, 47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
 - * 1994년 최초 아프간내 외세축출을 위해 탈레반이 결성된 장소이자 정신적 고향
 - 4명의 테러범이 출입구에서 폭발물을 터뜨리고 내부로 진입하여 무차별 총격을 가했으며, 언론은 '미군 철수 이후 최악의 날'이라고 평가
 - 이와 관련, ISIS-K는 同 테러 배후를 자처하며, "탈레반이 아프간 점령 이후 미국과 평화협정을 추진한 점 등을 비난하면서 지속 공격을 자행
 - * '21.8.26 카불 국제공항 자살폭탄 테러(182명 사망), '21.9.18~19 잘랄라바드 연쇄 폭탄테러(15명 사망), '21.10.8 아프간 모스크 폭탄테러(46명 사망) 등
 - 이에, 탈레반은 ISIS 테러에 대해 소수 시아파 민족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히며 아프간내 모스크와 이슬람 학교 등에 특별 경비원을 배치
- ⇒ 최근에도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바, 현지 우리국민 피해가 없도록 관심이 요망됨

< ISIS-호라산 지부(ISIS-K) >

- (목표) 호라산 지역*에 샤리아(이슬람 율법)로 통치되는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
 - * 이란어(페르시아語)로 '일출 지역'의 의미로 과거 페르시아제국의 동부 지역을 구성 하던 현재의 이란·아프가니스탄·파키스탄·투르크메니스탄 일대 지역을 통칭
- (테러단체 지정) UN('19.5), 미국('16.1), 호주('17.11), 인도('18.6)
- (활동수법) 도시에서는 軍警 및 정부청사·다중운집장소 대상 자폭테러, 지방에서는 도로매설 폭탄테러·매복공격 등 게릴라戰 전개
- (ISIS와의 관계) '14년 '아프간 탈레반'·'파키스탄 탈레반'에서 소외된 중견 간부들(파키스탄 부족 자치지역 출신)이 이탈, ISIS에 충성맹세 후 '15년 호라산 지부를 결성
- (주요테러) ('20.8월) 낭가하르주 교도소 습격(29명 사망), 수감 조직원 270명 탈옥지원 ('21.8월) 카불 공항·인근 호텔 자폭테러(182명 사망·200명 부상)